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1호

스포츠 학폭과 비리를 파헤치다

예전 중학교 양궁부 폭력 사건에 양궁협회 사과

최가영 YTN PLUS 기자

경북도체육회 양궁부 학폭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김선형 연합뉴스 기자

특혜의혹, 경희대-청주공고 '수상한거래'

박지혁 뉴시스 기자

대한체육회

유인탁 신임 진촌선수촌장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력 향상"

임충식 뉴스1 기자

도쿄올림픽

IPC "아프간 선수들 보호 의무 있다…거취는 선수들이 결정"

장보인 연합뉴스 기자

'도쿄올림픽 중계' 논란에 MBC 보도본부장 책임지고 사퇴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예천 중학교 양궁부 폭력 사건에 양궁협회 사과

대한양궁협회가 최근 예천지역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대한양궁협회는 23일, 양궁협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피해 학생의 치료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 A군이 1학년 후배 B군에 연습용 화살을 쏴 B군이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B군의 친형은 양궁협회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예천에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한 곳이어서 중학교에서도 만나는 상황이었다"며 "가해자가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의 친형은 "(가해자 A군은)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 미수범"이라며 "가해자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궁협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학생 학부모와 연락해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궁협회는 "이번 건과 같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속 시·도 (협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지만, 대한양궁협회는 징계 권한 유무를 떠나서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궁협회는 1·2차 징계 권한 단체인 경북양궁협회 및 경북체육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하고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궁협회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 및 인권교육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실망을 안기지 않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글을 끝맺었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자료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241028013714

경북도체육회

연합뉴스
긴선형 기자 2021.08.25

양궁부 학폭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경북도체육회는 최근 예천 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양궁부 학교폭력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양궁협회가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도체육회는 지난 24일 대한양궁협회가 사건 조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27일 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회 결과와 진상조사단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과 지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비위행위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및 징계처리 후 대한체육회와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관할 시·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징계 처분 요구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가해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김하영 경북도체육회장은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체육회 전반에 발생하는 폭력 사건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궁협회와 양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최근 일어난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의 친형입니다.	2021-08-20

작성자	박*원	조회수	1222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어난 양궁부 학교폭력사건 피해자의 친형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와서 글을 쓰는 이유는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글을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제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궁을 해오던 양궁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4학년 5학년으로 올라올 때쯤 주변의 선배에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제 동생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또 한 번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언론화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천의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한군데라 중학교에 가서도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되었는데 큰상 처가 생겨있더군요.

당시는 제가 생활기록부나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잘 몰랐는데 등에 상처가 뭐냐 물어보니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양궁부 선배가 자신에게 활을 쐈다고.
그때 말하던 상황에서 정말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동생한테 일어난 일인지….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뉴스가 딱 뜨더군요.

부모님이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 해볼 상황이었지만
(동생한테 들었을 때는 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합니다.)
상대편 부모님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부모님께서 화가 잔뜩 나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선 언론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분위기가 입막음하려는 분위기인지
제가 친구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할 때까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군요.

부탁드립니다. 대한양궁협회 분들 꼭 가해자 학생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 아니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 미수범에게는 다시 활을 잡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청원 링크입니다.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0p8gW

예천 중학교 양궁부 학폭 규탄 게시글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160800053?input=1195m

뉴시스
박지혁 기자
2021.08.22

[진실을 캐다5]

특혜의혹, 경희대-청주공고 '수상한거래'

【앵커】
OBS와 셜록의 공동탐사보도 '진실을 캐다' 시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주장 선수가 입학한 경희대학교는 주장 선수가 다녔던 청주공고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희대 핸드볼부는 2013년부터 7년간 청주공고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체육관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았는데요. 특혜 의혹에 법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희대학교는 왜 학교폭력 가해자를 받아줬을까. 취재진은 청주공업고등학교와 경희대가 어떤 관계였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경희대 핸드볼부는 2013년부터 7년간 청주공고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학교 운동부가 수 년간 특정 고등학교에 가서 합동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

[**조용찬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특정 지역에 갔다고 해서 어느 한 학교에 숙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 좀 금기시해요. 특혜 아니면 담합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 입시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공고 핸드볼부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6명, 이중 20명이 경희대에 입학했습니다.

[**이병호 / 스포츠인권연구소 운영위원**: 대학에 진학할 아이들이고 그건 좀 불공정한 경쟁이 아닌가 싶고….
지도자들 간의 친분이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유대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체육관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청주공고는 공립학교이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 시설 이용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주공업고등학교 관계자**: 체육관 사용료는 징수한 실적이 없고요. 저희학교 선수들하고 같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아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 같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박지희 씨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내자 경희대는 청주공고가 해당 시설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종의 특혜인 셈인데, 상급 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은 물론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 현재 그 무상사용 규정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지금 저는 판단하거든요.]

[**박지훈 / 변호사(사람과 운동 대표)**: 기안하는 사람부터 위로 가면 교장까지 이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문제고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공고 코치가 학부모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희대와의 합동훈련 때 지도를 하는 트레이너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박 씨는 동계훈련 직전인 2019년 12월 코치에게 6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경희대 핸드볼부 골키퍼 트레이너: (학부모한테 트레이닝비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거는 대한체육회에 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다 알아보세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대한핸드볼협회는 해당 트레이너가 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관련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셜록 이나영입니다.

자료 출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787

유인탁 신임 진촌선수촌장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력 향상”

뉴스1
임충식 기자 2021.08.27

진천선수촌장으로 임명된 유인탁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모는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선수촌의 모든 길은 경기력향상으로 통해야 한다.”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유인탁 전북체육회 사무처장(63)이 진촌선수촌장으로 임명됐다.

27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날 유 사무처장을 진천선수촌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전북 출신이 선수촌장으로 임명되기는 박종길 전 태릉선수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사무처장은 선수로서의 화려한 경력은 물론이고 지도자와 행정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년 간이다.

유인탁 신임 선수촌장은 “올림픽 결승전 못지않게 가슴이 뛰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어깨 또한 무겁다”며 “한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이 오롯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 선수촌장은 “선수촌은 단순한 국가대표 선수 합숙훈련장이 아니다. 한국 엘리트 선수들의 요람인 만큼, 선진 스포츠 시스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체육훈련생태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 체육 전문가와 소통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또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해외 및 국내전지훈련을 통해 경험 축적과 장단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겠다”며 “선수촌의 종착역은 경기력 향상인 만큼, 운영방향이 경기력을 향하고 있는 지 항상 뒤돌아보며 합리적 사고로 선수촌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전북 체육계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진천 선수촌장으로 가셔도 전북을 잊지 않고 전북 체육,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유 사무처장의 선수촌장 발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선수촌장은 “전북(김제) 출신 선수촌장으로서 전북인의 손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대한체육회는 물론이고 중앙 체육과 전북 체육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펼쳐 전북 체육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유인탁 신임 선수촌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지난 1974년 이리농고에서 레슬링에 입문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했지만 곧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선수의 훈련파트너였던 그는 8년 뒤인 1984년 LA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다.

당시 결승전 상대는 세계 챔피언이었던 미국의 앤드류 라인. 유 선수촌장은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같은 명 경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휠체어를 타고 시상식에 입장한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은퇴 후에는 대한주택공사 레슬링팀 코치와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하면서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전주대학교 체육부 객원교수와 KBS 해설위원을 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등을 맡으면서 풍부한 체육 행정 경험도 쌓았다. 특히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인권친화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고,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416563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2021.08.29

[패럴림픽] IPC "아프간 선수들 보호 의무 있다…거취는 선수들이 결정"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2020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위해 자국을 탈출, 일본에 입성한 아프가니스탄 대표팀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크레이그 스펜스 IPC 대변인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회 이후 선수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선택할 문제이며 우리는 그들의 바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PC와 아프가니스탄 패럴림픽위원회는 전날 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장애인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3)와 장애인 남자 육상 선수 호사인 라소울리(26)가 도쿄 패럴림픽 선수촌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하려던 두 선수는 최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공항이 마비되면서 수도 카불을 벗어나지 못해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부와 IPC, 스포츠 및 인권 기관 등의 도움으로 지난 주말 카불을 탈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 뒤 28일 무사히 일본에 입국했다.

스펜스 대변인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참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 파리에서도 출전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며 "선수촌 도착 후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첼시 고텔 IPC 선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들을 환영했고, 이후 별도의 회의실에서 미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팅은 매우 감정적이었고, 참석자 모두가 많은 눈물을 쏟았다"고 전했다.

스펜스 대변인은 기자회견 내내 선수 보호가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대표팀 선수들과 선수단장은 대회 기간 미디어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경기 뒤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 인터뷰도 불참한다.

스펜스 대변인은 "두 선수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한 주를 보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들의 안녕과 정신 건강, 복지 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인 쿠다다디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패럴림픽 태권도 여자 49㎏급(스포츠등급 K44) 경기에 출전한다.

당초 남자 육상 100m(스포츠등급 T47)에 출전할 계획이던 라소울리는 이달 31일 치러지는 멀리뛰기에 출전한다.

boin@yna.co.kr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9032600007?input=1195m

‘도쿄올림픽 중계’ 논란에 MBC 보도본부장 책임지고 사퇴

디지털뉴스
윤혜주 기자

MBC가 2020 도쿄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그래픽과 자막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일에 대해 민병우 보도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MBC는 오늘(23일) "민병우 보도본부장이 방송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이날 오전 임원 회의에서 밝혔고 박성제 사장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송민근 스포츠국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자리를 교체했으며 MBC 플러스 조능희 사장과 황승욱 스포츠 담당 이사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에 대해서는 MBC와 MBC플러스 두 회사가 각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MBC는 올림픽 개회식 방송 도중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사용하고, 아이티 선수단 입장 때는 대통령 암살을 언급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요 외신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회식 논란 이후에도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루마니아 경기에서 루마니아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하자 "고마워요"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수차례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박성제 MBC 사장이 직접 "전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2020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논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원인을 ▲인권과 상대 국가 존중 등 공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식 미흡 ▲방송심의 규정 등 관련 규정과 과거 올림픽 사례에 대한 교육 부족 ▲국제 대형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검수 시스템 미비 ▲중계방송 제작 준비 일정 수립 부족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송 강령에 명시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모독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사위 권고에 따라 MBC는 개인 판단 또는 실수로 부적절한 자막과 사진, 자료 화면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스포츠 제작 가이드라인과 검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MBC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전반적인 제작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료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580159

체육시민연대 사무국 소식

8월 27일(금) 16시 체육시민연대 제7차 집행위원회 진행

주간 스포츠 소식

탈레반 살해 위협받던 아프간　　축구팀, 호주 도움으로 탈출 성공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601200000635?did=NA

도쿄 올림픽을 통해 본 IOC의 민낯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868208/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을 뽑아주세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0_0001565308&cID=10501&pID=10500

'첫 선수 출신 IOC 위원장' 로게, 별세…"클린 스포츠 앞장"

https://www.news1.kr/articles/?4417960

[연통TV]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특급대우'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84300888?input=1195m

상명대, '비대면 스포츠시장 사업전환' 기업 지원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752

가톨릭관동대 세바스티아노 스포츠센터, 실내테니스장 개장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265

광주 일부 학교, 학교운동부→전문스포츠클럽 전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122500054?input=1195m

[스포츠 특집] 사진으로 본 2020 도쿄올림픽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46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